

러시아의 남 코카서스 접근 전략과 코카서스 3국의 대응: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를 중심으로*

김선래(한국외국어대)**

논문요약

러시아는 남 코카서스(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를 역사적으로 자국의 영향권이자 근외 지역(Near Abroad)으로 간주하며, 이 지역의 안정과 안보를 자국 안보의 핵심 영역으로 보고 있다.

남 코카서스 3국은 특히 튀르키예와 러시아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모호하고 복잡한 경쟁과 협력의 길을 가고 있다. 이들 국가는 러시아로부터 외교적 유연성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교류와 협력을 통해 역내 안정과 평화를 정착하는 것이 목표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제한된 자원과 관심이 분산되면서, 남 코카서스에서 군사적 지렛대가 약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전통적인 군사적 지배 전략에서 벗어나 경제적 연결성(교통 회랑), 하이브리드 영향력, 그리고 정치적 중재자 역할에 더 의존하는 적응형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주제어: 남 코카서스, 러시아 근외지역, 러시아 안보, 코카서스 3국

* 이 연구는 2025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연구지원사업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또한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6A3A02102950)

** 한국외국어대 러시아연구소 HK교수. E-mail: sunrae63@hanmail.net

I. 들어가면서

코카서스 3국은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을 말하며,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위치해 있다. 이 세 국가는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에 있으며, 각각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제정러시아와 소련의 영향을 받았으며, 이 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러시아와의 깊은 관계일 수밖에 없다.

러시아는 중앙아시아와 남 코카서스 국가들과의 협력을 근외 정책에 있어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이들 국가와는 오랜 역사적 상호작용에 기반을 두고 있다. 코카서스 지역은 제정 러시아에 속해 있었으며 소련 시대에는 공통의 경제활동과 규범 및 규칙, 금융과 경제 및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했다. 중앙아시아와 남 코카서스 지역은 운송 회랑으로 중국, 튀르키예, 이란, 인도 등으로 이어지는 파이프라인 네트워크도 연결되어 있다.

러시아는 남 코카서스(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를 역사적으로 자국의 영향권이자 근외 지역(Near Abroad)으로 간주하며, 이 지역의 안정과 안보를 자국 안보의 핵심 영역으로 보고 있다. 미국, 유럽 연합(EU), 나토(NATO) 등 서방 세력이 해당 지역의 정치, 군사, 경제시스템에 깊숙이 관여하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 목표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러시아는 공세적 외교 역량을 투사해 코카서스 국가들에 대해 영향력을 유지하는 정책을 추구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되면서 러시아의 대외 역량이 약화되었다. 이 같은 이유로 러시아 근외 지역에 대한 대외전략이 공세적에서 적응형 영향력 전략(Adaptive Influence Strategy)으로 변화했다. 적응형 영향력 전략이란 러시아가 대외적 외교 역량의 약화에 대한 상황을 인지하고 전략적 대상에 대한 진단과 상태를 파악한 후 합목적성에 맞게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효과적인 전략을 선택하는 이론이다. 외교·경제·군사 협력이 필요한 코카서스 국가들에 대해 유연하게 접근하여 러시아 국가 이익을 관철하는 전략이다. 러시아는 집단안보조약기구(CSTO)의 틀 내에서 통합방공 시스템과 공동군사 시설, 그리고 양자 간의 안보 협정을 통해 러시아 남부 국경 안보를 강화하고 있다. 남 코카서스에서 튀르키예와 이란의 확대되는 영향력을 견제하는 동시에, 필요에 따라 이들과 협력('3+3' 회담 형식 참여)하여 지역 안정을 관리하고 서방의 개입을 방어한다. 남 코카서스 3국은 특히 튀르키예와 러시아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모호하고 복잡

한 경쟁과 협력의 길을 가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러시아 제국과 오스만 제국의 전략적 중요지역으로 이 지역의 지배권을 두고 이 두 강대국이 경쟁해 왔다. 러시아는 역사적,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이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으며 튀르키예는 같은 민족인 아제르바이잔을 통해 그 영향력을 지속해 왔다.

2020년 제2차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과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은 남 코카서스 국제정세를 변화시켰으며 모스크바와 앙카라는 불안정하지만, 실용주의에 입각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의 영향력 강화와 약화에 따라 남 코카서스의 세력균형이 변화하기에 이러한 역내 세력균형과 영향력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이 지역의 미래를 예견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 보겠다.

오늘날 남 코카서스 지역은 내륙 교차로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상충하는 이해관계와 대조적인 문화가 새로운 "거대한 게임"을 벌이는 복잡한 퍼즐 조각으로 남아 있다. 역사적으로 튀르키예와 적대적 관계였던 아르메니아는 경제적, 군사적으로 러시아에 안보를 의존하고 있지만, 조지아는 2008년 러시아와의 전쟁 이후 서방과 튀르키예에 점점 더 가까워지다가 2024년 이후 다시 모스크바에 접근하고 있다.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아제르바이잔은 두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군사 및 에너지 분야에서 튀르키예에 더 기울어져 있으며, 앙카라와 함께 유럽 탄화수소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 에너지가 풍부한 카스피해 분지는 또 다른 경쟁의 초점으로, 러시아는 광범위한 가스 망을 활용하여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는 반면, 튀르키예는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바쿠-트빌리시-세이한 파이프라인과 같은 대체 경로를 추진했다. 에너지, 무역, 안보 분야에서 이러한 지속적인 경쟁은 현재 이 지역 세력균형의 토대를 형성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가 과거처럼 유일한 중재자나 안보 제공자 역할은 약화했으나, 여전히 가장 중요한 역외 행위자로 적응형 영향력 전략을 통해 지위를 유지하고, 위기를 관리하거나 통제함으로써 지역 국가들의 러시아 의존도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

조지아의 경우 분리주의자들이 점령한 지역인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야 공화국에 러시아는 군사력 주둔을 통해 조지아 주권을 압박하고 조지아 내 친러시아 성향의 단체와 연계하여 반서방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러시아와 조지아 간 경제적 의존 심화를 통해 영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러시아의 대(對) 코카서스 안보 전략은 크게 러시아 연방 내에 있는 북 코카서스 안정화와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가 있는 남 코카서스 지역에 대한 영향력 유지 및 확대라는 두 축으로 나눌 수 있다. 코카서스 지역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흑해 및 카스피해와 인접한 에너지 수송로의 거점이기 때문에 러시아 국익에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이 논고에서는 러시아의 남 코카서스 전략적 접근 정책과 그 맥락을 살펴보고 러시아와 남 코카서스 국가 간의 상호 교호작용과 러시아의 영향력에서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남 코카서스 국가들의 내용을 살펴본다. 글 2장에서는 러시아의 남 코카서스 접근 전략과 정책에 대하여 그 역사적·지정학적 맥락에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중점을 두고 살펴본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러시아의 대 코카서스 영향력이 약화하였고 이러한 지정학적 변화는 남 코카서스 국가에 있어서 전략적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3장에서는 남 코카서스 3국이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변화된 역내 힘의 변화 속에서 러시아와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형성해 나가고 있는지와 이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에 대하여 들여다볼 것이다. 결론에서는 러시아의 대 코카서스 접근 전략의 방향과 그 한계를 설명하고 남 코카서스 국가들이 러시아와 문명적 별거 상태이지만 지정학적 영향력으로 인하여 러시아로부터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살펴본다.

II. 러시아의 남 코카서스 전략

1.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소련 붕괴 이후 1990년대에는 높은 수준의 상호 의존성에도 불구하고 코카서스 지역은 자체적인 사회경제적 문제로 인해 러시아의 외교정책 우선순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첫 단계인 2000년까지는 옛소련 국가들의 정치, 경제, 정신 체계가 분리된 문명화된 이혼 시기이며 동시에 새로운 관계 모델을 위한 국제법적 틀이 형성된 기간이었다. CIS 형태의 정치적

상호작용 모델은 소련 시대의 정치적, 경제적 근접성 요소를 협력에 활용했을 뿐, 상호작용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와 메커니즘을 모색하지 않았다.

푸틴 정부 시기인 2000년 7월, 러시아 연방 대외정책 개념이 개정되었고, 중앙아시아 공화국을 포함한 CIS 국가들이 러시아 외교정책의 우선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이는 지역 협력에 새로운 자극을 제공했으며 새로운 다자간 이니셔티브가 등장했다. 2000년에는 포스트소비에트 공간 내 투르크메니스탄, 아르메니아, 벨라루스를 제외한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 경제 공동체(EurAsEC)가 설립되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러시아 3국이 관세동맹으로 발전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 단일 경제 공간으로 강화되었다. 2015년에는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이 이 단일 경제 공간에 합류하게 된다.

러시아의 코카서스 전략은 남 코카서스 3국(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위해 역내 분쟁을 관리하고 이용하는 데서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조지아와 관계에서 남오세티야(South Ossetia)와 압하지야(Abkhazia) 영토 분쟁을 통한 견제와 압력을 행사해 왔다. 2008년 러시아와 조지아 간 전쟁인 남오세티야 전쟁이 그 예이다. 2000년대 초, 친서방 성향의 정부가 들어선 조지아가 나토(NATO) 가입을 추진하고 남오세티야 공화국과 압하지야 공화국 같은 분리주의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회복하려 하자, 러시아는 이를 자국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했다. 2008년 8월, 조지아가 남오세티야 수도를 공격하자 러시아군이 대규모로 개입하여 분쟁 지역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조지아 영토 깊숙이 진격하여 조지아의 군사력을 무력화했다. 전쟁 후 러시아는 남오세티야와 압하지야를 독립 국가로 공식 승인하고 군사기지를 주둔시켜 사실상의 통제권을 확보했다.¹⁾ 이 분쟁을 통해 러시아는 조지아의 나토 가입을 사실상 저지하고, 흑해 연안 및 코카서스산맥 남부에서의 군사적 입지를 공고히 했다. 조지아는 이 사건 이후 러시아와 단교를 했다.²⁾

1) Faezeh Ghasemi, Hamid Hakim, "Georgia's Foreign Policy from A Geopolitical Perspective (2008-2018); based on the Grand Chess Board Doctrine by Brzezinski," *Geopolitics Quarterly*, Vol. 19, No. 4, 2024, pp. 349-350.

2) 현승수, "러시아의 남 코카서스 정책: 군사 안보 전략을 중심으로" 『슬라브 학보』, 제29권, 2호, 2014. pp. 341-372.

러시아는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양국 모두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들의 나고르노-카라바흐(Nagorno-Karabakh) 분쟁을 통해 지역의 안보 질서를 주도해왔다.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은 아제르바이잔 영토 내에 있지만, 주민 대 다수가 아르메니아계인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의 영유권 문제로 발생했다. 이 분쟁에서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아르메니아를 지원했다. 아르메니아는 러시아 주도의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회원국이며, 러시아는 아르메니아에 군사기지를 두고 무기를 공급하는 핵심 안보 동맹이었다.³⁾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1차 전쟁(1988~1994년)은 러시아의 중재로 휴전했으며, 이후에도 러시아는 유럽안보 협력기구(OSCE) 민스크 그룹의 일원으로 평화협상을 주도해 왔다.⁴⁾

2020년 2차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은 튀르키예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아제르바이잔이 승리하며 러시아의 중재력에 타격을 입혔다. 2020년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에 6주 동안 이어진 제2차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은 이 지역 지정학적 지형에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왔다. 1988년부터 1994년까지 지속되어 아르메니아 군의 승리로 종결된 제1차 전쟁과는 달리, 튀르키예는 군수품, 고문, 외교적 지원을 아제르바이잔에 제공함으로써 아제르바이잔의 군사적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러시아는 이 분쟁에 아르메니아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중단했으며 중립적 입장을 취해 지역 균형 재편에 큰 영향을 미쳤다.⁵⁾

러시아는 아르메니아에 대한 군사적 지원 대신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간 종전 협정을 중재하고 분쟁 지역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하여 군사 주둔을 합법화해 지역 안정화 명목으로 러시아의 군사적 영향력을 공고히 하려는 전략적 선택을 했다.

3) 강윤희, “나고르노 카라바흐 분쟁의 평화적 해결 실패: OSCE 민스크 그룹의 중재 노력과 그 한계를 중심으로” 『러시아 연구』, 제31권, 제1호(서울: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21. pp. 57-58.

4) 장병옥,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의 원인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2권 제1호, 2008. pp. 301-326.

5) 신성균, 반기현, “하이브리드 전쟁(Hybrid war)으로 살펴본 제2차 나고르노-카라바흐(Nagorno-Karabakh) 전쟁.” 『국방연구』, vol.64, no.2, 2021. pp. 49-81.

2.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1) 러시아의 대 코카서스 전략의 변화

2023년 아제르바이잔이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역을 장악했을 때, 러시아 평화유지군이 사실상 무기력하게 관망하면서 아르메니아와의 전통적 동맹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역내에서의 영향력에 한계가 생겼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아제르바이잔과 튀르키예의 영향력 확대를 일부 용인함으로써 새로운 힘의 균형을 모색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서방의 제재는 러시아 경제의 위기로 다가왔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러시아의 남 코카서스 지역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대서방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튀르키예와 관계 개선이 필요했기에 튀르키예와 무역 및 에너지 협력을 강화했다.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은 튀르키예는 러시아 에너지 수송과 러시아 곡물 수출의 대유럽 우회 통로로 그리고 유럽으로 가스 수출을 위한 튀르키예 파이프라인에 러시아를 더욱 의존하게 했다. 이러한 관계 변화는 이 지역에 전통적으로 영향을 주던 튀르키예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하는 기간에 아제르바이잔과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했다고 보겠다. 모스크바와 앙카라의 역내 이해관계가 상충함에도 불구하고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추진에서 튀르키예는 NATO 의무와 러시아와의 전략적 관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면서 튀르키예의 외교적 영향력이 더 강화되었다. 이러한 러시아의 對 코카서스 전략의 변화는 對 러 경제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튀르키예의 역할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며 중앙아시아와 코카서스 지역에서 전통적 경쟁 관계인 튀르키예 영향력 확대를 일정 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동안 튀르키예는 러시아와 경제적, 군사적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에 드론과 기타 군사 지원을 제공해 왔다. 이러한 책략을 통해 튀르키예는 러시아와 서방 모두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고, 자신의 입지를 활용하여 전략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또한, 남 코카서스 지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약화함에 따라 튀르키예는 아제르바이잔은 물론, 튀르키예-아제르바이잔과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중앙아시

아에도 영향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⁶⁾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영향력이 약해진 코카서스 지역에 대해 역내 동맹국들과 연합하여 관리하려는 3+3 안보 구조를 제도화하는 적응형 영향력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코카서스 3+3은 일반적으로 코카서스 3국(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과 러시아, 그리고 주변의 다른 2개 국가(이란, 튀르키예)를 포함한 지역 협력 또는 정치적 구도를 지칭하는 표현이다. 목표는 역내 안보 증진, 경제 및 교통 연결망 활성화(운송 통로 재개방), 갈등 관리 등을 논의하는 비공식적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 튀르키예와 아제르바이잔이 2020년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 이후 이 구상을 제안했고, 러시아와 이란이 환영했다. 조지아는 러시아가 자국 영토를 점령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회담 참여를 거부하며 불참하고 있다. 아르메니아는 일부 유보적 입장을 취하면서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참여국들은 2021년 모스크바, 2023년 테헤란, 2024년 이스탄불에서 외교 차관급 회의를 개최하는 등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공식적인 제도적 틀로 발전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 코카서스 3+3'은 현재 공식적인 명칭이 아니지만, 코카서스 3국과 러시아의 지정학적 관계를 나타내는 비공식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다.⁷⁾

아르메니아 외교부 차관은 남 코카서스 지역의 통신 연결망 차단 해제에 대한 합의가 '3+3' 형식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언급하며, 이 플랫폼이 운송 및 기반 시설과 같은 역내 프로젝트 논의에 유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24년 10월,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마지막 외교 차관급 회의가 열린 이후, 2025년에는 아직 다음 회담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관련국 간의 논의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⁸⁾

6) 이지은, “에르도안 집권기 터키 대외정책의 유라시아 지향성 강화.” 『슬라브研究』, 제36권, 제1호, 2020. pp. 55-58.

7) “Формат '3+3': новое экономическое измерение для Южного Кавказа и соседей.” *Вестник Кавказа*, 24 окт 2023, <https://vestikavkaza.ru/analytics/format-33-novoe-ekonomiceskoe-izmerenie-dla-uznogo-kavkaza-i-sosedej.html?ysclid=mipuvsb540599983037>(검색일:2025.11.28.).

8) “Южнокавказская шестерка»: какие перспективы у формата «3+3».” *Российский совет по международным делам (РСМД)*, 27 августа 2024, https://russiancouncil.ru/analytics-and-comments/columns/sandbox/yuzhnokavkazskaya-shesterka-kakie-perspektivy-u-formata-3-3/?sphrase_id=256419060&ysclid=mipuz27jdv621289065(검색일:2025.11.28.).

러시아는 남 코카서스 국가들에 대해 강력한 친러시아 성향의 매체를 활용해 반서방 적 내러티브를 유포하고, 서방이 해당 국가들을 '제2 전선'으로 끌어들이려 한다고 비난하는 등 여론을 조성하고 아르메니아 등지에서는 현 정부에 반대하는 친러시아 성향의 야당 및 정치인을 지원하고 국내 정치의 변동을 추진하면서 지도부의 서방 정책 노선 이탈을 압박하고 있다. 그리고 서방과의 협력을 강화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것임을 암시하는 동시에, 경제 협력 재개나 안보 지원 재개와 같은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다. 조지아의 경우 러시아에 의존성이 높은 에너지와 곡물 수입을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

(2)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 아제르바이잔에 통합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남 코카서스에서 발생한 지정학적 변화는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의 아제르바이잔 통합이다. 이 전쟁은 옛 소련에서부터 시작되어 지난 30여 년간 두 국가가 명운을 걸고 여러 차례 전쟁을 벌였으며 결국 아제르바이잔 승리로 이어져 아제르바이잔의 영토 수복이 완성되었다고 보겠다. 현재 나고르노-카라바흐(Nagorno-Karabakh) 지역은 아제르바이잔의 완전한 주권 아래 통합된 상태이다. 수십 년간 이어진 영토 분쟁은 2023년 아제르바이잔의 군사적 승리와 2024년 아르차흐 공화국(나고르노-카라바흐 공화국)의 공식적인 해체로 사실상 종결되었다. 30여 년간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실효 지배했던 미승인 국가인 '아르차흐 공화국'은 2024년 1월 1일부로 공식 해체되었다.⁹⁾ 이는 2023년 9월, 아제르바이잔의 전격적인 군사 작전(대테러 작전)에 항복한 결과다. 현재 아르메니아계 자치 정부의 모든 기구는 해산되었으며,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임명한 행정부가 이 지역을 통치하고 있다. 수도였던 스테파나케르트(Stepanakert)는 아제르바이잔어 지명인 한켄디(Khankendi)로 변경되었다. 아제르바이잔의 통치가 확정되면서, 이 지역에 거주하던 약 12만 명의 아르메니아계 주민 중 거의 전원(10만 명 이상)이 보복과 탄압을 우려해 아르메니아 본토로 피난을 떠났고 현재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은 아르메니아계 주민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사실상 공백 상태가 되었고, 아제르바이잔은 자국민의 이주 및

9) 조현준, 홍성우,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의 양면 게임 :OSCE 평화협상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29권 제1호, 2025. pp. 271-301.

정착(재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¹⁰⁾

2025년 8월, 미국 등의 중재로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의 역사적인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을 통해 양국은 국경 획정 문제와 외교관계 정상화에 합의하고, 수십 년간의 적대 관계를 청산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과거 분쟁을 중재하던 OSCE 민스크 그룹은 해체 수순을 밟았으며, 지역 내 교통로 개방(잔게주르 회랑 등)과 관련된 경제적 협력이 논의되고 있다. 나고르노-카라바흐는 이제 분쟁 지역이 아닌 아제르바이잔의 일반 행정 구역이 되었다. 국제 사회는 아르메니아로 떠난 난민들의 인권 문제와 정착 지원에 집중하고 있으며, 남 코카서스 지역의 지정학적 질서는 튀르키예와 아제르바이잔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재편되었다.¹¹⁾

(3) 2025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평화협정

2025년 8월, 미국의 중재로 체결된 이 역사적인 협정은 일명 트럼프 중재안이라 불리며 양국 간의 적대 행위 영구 중단과 국경 획정을 골자로 한다. 양국은 1991년 소련 해체 당시의 행정 구역 경계를 국경의 기본으로 삼는 알마아타 선언(Alma-Ata Declaration)을 따르기로 합의했으며 이에 국경 획정의 첫 단계로, 아르메니아는 타부시(Tavush) 지역에 인접한 4개 마을(바가니스 아일림, 아샤기 아스키파라, 헤이림리, 기질하지리)을 아제르바이잔에 반환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 아르메니아 주민들의 반발과 시위가 있었으나, 2024년 말부터 이행이 완료되었다. 또한, 양국은 북부 국경 약 13km 구간에 대한 획정을 완료하고, 군대를 철수시킨 뒤 국경수비대를 배치했다.¹²⁾ 현재 남은 남부 국경 구간에 대한 획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10) “나고르노-카라바흐: '인종 청소' 우려에 아르메니아계 대탈출…갈등 이유는?” *BBC NEWS*, 2023년 9월 27일,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4n5q399ql5o>(검색일:2025.11.28.).

11)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트럼프 중재로 '평화선언' 서명.” 『연합뉴스』, 2025년 8월 9일, <https://www.yna.co.kr/view/AKR20250808153651071>(검색일:2025.11.30.).

12) “[이슈트렌드]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트럼프 중재로 역사적 평화협정 체결.” 『EMERiCs 러시아·유라시아』, 2025년 8월 22일,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csNo=385410&mid=a10200000000&systemcode=04>(검색일:2025.12.10.).

〈그림 1〉 트럼프 루트¹³⁾



중요한 것은 교통로 개방 (The Transit Corridor)인데 과거 잔케주르 회랑으로 불리던 노선과 유사한 개념으로 일명 트럼프 루트(Trump Route)라고 부르는 아제르바이잔 본토와 니히체반 자치공화국을 연결하는 약 43km의 육상 교통로가 아르메니아 남부(메그리 지역)에 개설된다. 이 도로는 아르메니아 영토로 남아 아르메니아 법률의 적용을 받지만, 미국 컨소시엄이 99년간 개발 및 운영권을 갖는 형태로 합의되었다.¹⁴⁾ 이는 러시아와 이란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서방의 개입을 강화하는 핵심 조항이다. 양국은 국제사법재판소(ICJ) 등에 제기한

13) “러시아 앞마당의 두 나라, 영토-종교 문제로 오랜 양숙.” 『조선일보』, 2025년 8월 11일,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5/08/11/N6X4PAYWFFF6DAIGYCZTMBEUE/(검색일:2025.11.30.).

14) “[이슈트렌드]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트럼프 중재로 역사적 평화협정 체결.” 『EMERiCs 러시아·유라시아』, 2025년 8월 22일,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No=385410&mid=a10200000000&systemcode=04>(검색일:2025.12.15.).

서로에 대한 모든 법적 소송을 상호 취하하기로 합의했고, 아제르바이잔의 요구에 따라, 과거 분쟁 중재 기구였던 OSCE 민스크 그룹의 공식적인 해체 절차에 동의했다.¹⁵⁾ 러시아는 평화협정에 대하여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있어서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다. 2020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러시아 간 체결된 합의를 강조하면서 역내 문제에서 러시아가 중요한 당사자임을 강조하고 있다.¹⁶⁾

Ⅲ. 러시아 안보와 남 코카서스 국가와의 관계

1. 조지아

2025년 11월 현재 조지아와 러시아의 관계는 공식적인 외교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조지아 집권당의 친러 성향 심화로 인한 국내적으로 긴장과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¹⁷⁾ 2008년 러시아-조지아 전쟁 이후 양국은 공식 외교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며, 2012년 이후 실무급 대화 채널인 프라하 포맷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소통해 왔고, 스위스를 통한 중재 채널만 유지하고 있다.¹⁸⁾ 러시아는 조지아 영토의 약 20%를 차지하는 남오세티야와 압하지야의 독립을 승인하고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으며, 이는 조지아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다. 조지아는 이 영토 문제 해결 없이는 외교관계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태도다. 현재 조지아 집권당인 조지아의 꿈 당은 공식적으로는 유럽연합(EU) 가입을

15) "OSCE, 30년 만에 '민스크 그룹' 운영 종료...마러 영향력 재조정 국면" 『nate 뉴스』, 2025년 12월 2일, <https://news.nate.com/view/20251202n15609>(검색일:2025.12.10.).

16) "Комментарий официаль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МИД России М.В.Захаровой в связи с переговорами лидеров Азербайджана и Армении в Вашингтоне (США)."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9 August 2025, https://mid.ru/en/foreign_policy/news/2040852/?lang=ru(검색일: 2025.11.18.).

17) 정세진,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조지아 외교정책의 방향성: 탈 서방, 친 러시아 경향." 『중소연구』, vol.49, no.2, 통권 186호, 2025. pp. 145-185.

18) "Kobakhidze: Georgia has no diplomatic relations with Russia, unlike candidate countries such as Moldova." *Georgian Public Broadcaster*, 07 November 2025, <https://1tv.ge/lang/en/news/kobakhidze-georgia-has-no-diplomatic-relations-with-russia-unlike-candidate-countries-such-as-moldova/>(검색일:2025.11.30.).

목표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러시아와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24년 10월 총선 직후인 11월 28일에 이라클리 코바히제(Irakli Kobakhidze)조지아 총리는 새 의회 임기(2028년 말까지) 동안 EU 가입 문제를 국정 현안으로 다루지 않을 것이며, EU 예산 지원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코바히제 총리는 일부 EU 정치인과 관료들이 보조금과 대출을 블랙메일과 조작의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비판하며, EU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는 것은 조지아의 주권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¹⁹⁾ 조지아 정부는 2028년 말까지 경제적 입지를 강화한 후 EU 가입 협상을 시작하여 2030년까지 EU에 가입하겠다는 목표는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 선언은 조지아 국민 대다수의 친 EU 성향과 충돌되며, 수도 트빌리시 등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와 경찰과의 충돌을 촉발했다.²⁰⁾ 당시 조지아 대통령과 야당은 이 결정이 헌법 쿠데타이며 친러시아 노선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이 발표는 유럽의회가 조지아의 2024년 10월 총선 결과에 심각한 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직후에 나왔다. 앞서 EU는 2024년 6월, 조지아의 외국 대리인 법 통과 이후 이미 조지아와의 고위급 대화를 중단한 상태였다.²¹⁾

조지아 집권 여당이 러시아의 외국 대리인 법과 유사한 법안(외국 영향력 투명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 국내 민주주의와 시민사회를 억압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으며, 이로 인해 시민과의 관계가 악화했다. 조지아 정부는 연간 수입의 20% 이상을 외국에서 지원받는 비정부기구(NGO), 언론사, 심지어 개인까지도 외국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또는 대리인)으로 법무부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했다.²²⁾ 등록을 거부하거나 재정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당한 금액의 벌금이 부과되며, 2025년 6월부터 시행된 개정된 법률(Foreign Agents Registration

19) "Georgia to suspend EU accession talks until 2028." *Al Jazeera*, 28 November 2024, <https://www.aljazeera.com/news/2024/11/28/georgia-to-suspend-eu-accession-talks-until-2028>(검색일:2025.11.28.).

20) "Georgians Protest Government Decision to Suspend EU Accession." *Jamestown*, 12 June 2024, <https://jamestown.org/georgians-protest-government-decision-to-suspend-eu-accession/>(검색일:2025.11.30.).

21) Alexandra Dienes, Elena Josten, "Georgia's look to the future: One eye on Russia, the other on the West," *Friedrich Ebert Stiftung*, Nov 2024, p. 2.

22) "조지아 대통령 '러시아적인 법'... '외국 대리인' 법 거부권." 『한겨레』, 2024년 5월 19일,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1141091.html> (검색일:2025.10.30.).

Act, GEOFARA)에는 형사처벌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수개월 간 조지아 전역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다.²³⁾ 시위대는 이 법이 조지아의 유럽 통합 노력을 저해하고 러시아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유럽평의회 산하 베니스 위원회(Venice Commission)는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며 민주주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이 법을 강력히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고, EU는 이 법이 조지아의 EU 가입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²⁴⁾ 미국은 이 법안 통과에 책임이 있는 조지아 관리들에 대한 제재를 추진했다. 현재 조지아 정부는 국제 사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법을 변경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으며, 이 법은 조지아의 민주적 발전과 서방 지향 노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5년 조지아의 대(對)러시아 경제 의존도는 높은 수준이지만, 조지아 정부는 무역 시장을 다변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2025년 상반기 무역액 데이터를 기준으로, 러시아는 조지아의 세 번째로 큰 교역국이다. 2025년 상반기 조지아와 러시아 간 무역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7% 증가한 13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조지아 전체 대외 무역에서 약 10.7%를 차지하고 있다.²⁵⁾ 조지아는 서방의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았으며, 러시아는 조지아산 와인의 최대 수출 시장이고 천연가스 주요 공급원이 되는 등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 높다. 또한, 액화가스 수입의 거의 10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고 특정 농산물 및 에너지 부문도 높은 의존도를 보인다.

조지아 국민 대다수는 EU 가입과 서방과의 통합을 강력히 지지하며 반러 감정이 강하지만, 정부의 정책 방향은 이와 상반되어 국내 정치적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²⁶⁾ 2025년 현재 조지아와 러시아는 공식적인 관계는 없지만, 조지아

23) "Georgia's Parliament Passes 'Transparency of Foreign Influence' Law." *Congress* 28, May 2024. <https://www.congress.gov/crs-product/IN12368>(검색일:2025.11.28.).

24) Georgia's Parliament Passes 위외글

25) "조지아-러시아 무역액, 2025년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 『EMERICs 러시아·유라시아』, 2025년 7월 23일. <https://www.emerics.org/446/newsBriefDetail.es?brdctNo=384379&mid=a1010000000&systemcode=04> (검색일:2025.11.20.).

26) 정세진, "조지아 대외정책의 방향성 : 조지아의 對 EU, 러시아 관계 및 나토 가입 이슈를 중심으로" 『중소연구』, vol.44, no.4, 2021. pp. 285-328.

집권당의 친러시아적 행보로 인해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조지아 국내적으로, 그리고 서방과의 관계에서 큰 갈등을 겪고 있다.²⁷⁾

2. 아르메니아

러시아와 아르메니아 간 가장 격변하고 있는 분야는 안보 동맹 관계다. 러시아의 전통적인 역할인 안보 보장국으로서의 지위가 나고르노-카라바흐 사태 이후 크게 흔들리고 있다. 제2차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아르메니아로 유입된 약 10만 명 이상의 난민들은 피난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아르메니아 사회의 주요 현안이 되고 있다. 초기에 정부가 제공한 임시 숙소 지원이 축소되면서 주거난이 심각해졌다. 많은 난민이 수도 예레반의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외곽 지역의 열악한 거주지나 집단 수용 시설에 머물고 있다. 정부의 주택 지원 프로그램이 있지만, 대가족 위주이거나 조건이 까다로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많다. 아르메니아 정부는 예산 부담을 이유로 난민에 대한 월 지원금을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했다(예: 1인당 5만 드람 → 3만 드람 등).²⁸⁾ 이로 인해 많은 가구가 빈곤선 위협을 받고 있으며, 생계유지를 위해 저임금 일용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아르메니아 본토 사회와의 통합이 쉽지 않고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느끼는 난민들이 늘어나면서, 러시아나 유럽 등 제3국으로 이주하려는 움직임(Exodus)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의 이탈이 두드러진다.

아르메니아의 니콜 파시냘(Nikol Pashinyan) 총리 정부는 2023년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에서 러시아가 전통적인 동맹국인 아르메니아를 효과적으로 지원

27) "Mood and attitudes of the adult population of Georgia towards the events that have developed in Georgia since October 26 – public opinion poll." *The Civil Society Foundation*, 11. February 2025, <https://csf.ge/en/%E1%83%9B%E1%83%9D%E1%83%A1%E1%83%90%E1%83%AE%E1%83%9A%E1%83%94%E1%83%9D%E1%83%91%E1%83%98%E1%83%A1-%E1%83%92%E1%83%90%E1%83%9C%E1%83%AC%E1%83%A7%E1%83%9D%E1%83%91%E1%83%94%E1%83%91%E1%83%98%E1%83%93/>(검색일:2025.11.28.).

28) "Armenia to reduce housing aid for Nagorno-Karabakh refugees." *Eurasianet*, 2 December 2024, <https://eurasianet.org/armenia-to-reduce-housing-aid-for-nagorno-karabakh-refugees>(검색일:2025.12.10.).

하지 못한 것에 크게 실망하며 탈 러시아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다. 아르메니아는 2024년 6월 러시아 주도의 군사·안보 협력체인 집단안보조약기구(CSTO)의 활동 참여를 사실상 중단했다. 고위급 행사 불참을 선언했으며, 심지어 CSTO 탈퇴 의사를 공식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그리고 수도 예레반의 즈바르트노츠 국제공항에 주둔해 있던 러시아 국경수비대에 철수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이는 자국 국경 통제력을 확보하려는 행보로 분석된다. 러시아는 아르메니아의 CSTO 탈퇴 움직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아르메니아 측이 아직 공식적인 철수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지 않으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아르메니아는 전통적인 안보 파트너인 러시아를 대신 하여 프랑스 및 유럽연합(EU) 등 서방 국가들과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프랑스와 첨단 무기 시스템인 카이사르 자주포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군사 관계를 '새로운 이정표'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사상 최초로 미군과의 합동 군사 훈련을 하는 등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구체적인 행보를 보인다. 나토(NATO)와의 관계 개선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EU)으로부터 국경 감시 임무단(EUMA) 파견을 허용하는 등 서방과의 군사·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아르메니아 정부의 이러한 탈 러시아 행보에도 불구하고, 규므리(Gyumri)의 제102 러시아 군사기지 자체는 여전히 주둔하고 있지만, 그 역할과 지위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이 기지의 주목적 중 하나였던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 내 아르메니아계 주민 보호 기능은 아제르바이잔의 해당 지역 완전 탈환(2023년)과 러시아 평화유지군 철수(2024년)로 인해 크게 약화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기지가 튀르키예 국경에 대한 러시아의 전략적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아르메니아 국민 사이에서는 기지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 기지를 남 코카서스 지역의 가장 큰 군사 시설이자 2044년까지 계약된 핵심 거점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아르메니아 정부가 전체 기지 철수를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르메니아의 규므리(Gyumri)²⁹⁾에 주둔 중인 제102 러시아 군사기지는 러

29) 러시아 연방군 남부 군관구(Southern Military District) 예하 102 러시아 군사기지는 아르메니아 제2의 도시인 규므리(Gyumri) 시내에 있다. 수도 예레반에서 북쪽으로 약 120km 떨어져 있으며, 특히 튀르키예와의 국경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전략적 요충지에 자리 잡고

시아의 군사적 영향력을 상징하며, 아르메니아의 안보 보증인 역할을 해왔다. 기지의 역사는 1941년 소련 붉은 군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소련 붕괴 후 1995년 러시아와 아르메니아 간의 조약을 통해 정식으로 러시아 군사기지로 건설되었다. 주둔 기간은 원래 25년 기한이었으나, 2010년 양국 간의 협정을 통해 주둔 기한이 2044년까지 49년으로 연장되었다.³⁰⁾ 최근 아르메니아가 친서방 노선을 강화하고 아제르바이잔과의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이 기지의 미래와 역할에 대한 지정학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파시난 정부는 러시아와의 안보 동맹을 깨고 있지만, 아르메니아에는 튀르키예와 맞닿아 있는 국경에 잠재적 역지력을 제공하는 이 기지를 완전히 잃는 것에 전략적 부담감이 존재한다. 러시아가 이 기지를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관찰되고 있다. 그러나 나고르노-카라바흐에 배치되었던 러시아 평화유지군이 아제르바이잔이 점령한 이후 철수했고, 이는 러시아의 군사적 영향력 감소로 보인다.³¹⁾

아르메니아는 정치·군사적으로 러시아와 분리되려는 움직임이 강하지만, 경제 분야에서 러시아에 대한 높은 의존도 때문에 단절이 어렵다. 아르메니아는 에너지 분야에서 러시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특히 천연가스는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가스프롬(Gazprom)이 공급하며, 아르메니아의 화력발전소 가동 및 난방에 필수적이다.³²⁾

수십만 명에 달하는 아르메니아 디아스포라가 러시아에서 일하며 본국으로 송금하는 규모가 상당하고, 이는 아르메니아 경제의 주요 버팀목 역할을 한다.³³⁾ 이 때문에 아르메니아는 러시아 주도의 경제 공동체인 EAEU 회원국으로,

있다. 편제는 여단급 부대로, 일반적으로 3개의 기체화 소총 대대와 1개의 전차 대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장비는 S-300 대공 미사일 시스템, 예레반의 에레부니(Erebuni Airbase) 공항 내 기지에 MiG-29 전투기 등이 배치되어 있다. 병력 규모는 과거 5,000여 명 규모였으나 현재 약 3,000명의 러시아 군인이 주둔하고 있다.

30) “Российская база в Гюмри: где находится, состав, численность и история.” *Вестник Кавказа*, 26 окт 2023,

<https://vestikavkaza.ru/articles/rossijskaa-baza-v-gumri-gde-nahoditsa-sostav-cislennost-i-istoria.html> (검색일: 2025.12.12.).

31) “러시아가 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 모든 평화유지군을 철수시켰습니다.” *Vietnam.vn*, 2024년 12월 6일, <https://www.vietnam.vn/ko/nga-rut-toan-bo-luc-luong-gin-giu-hoa-binh-khoi-nagorno-karabakh>(검색일:2025.12.10.).

32) 김연규, “아르메니아 문제와 아르메니아 ‘균형외교’의 한계.” 『중소연구』, 제32권 4호, 2009. p. 158.

33) “Armenia’s reliance on Russian remittances drops as Ukraine war reorders regional

이 틀 안에서 경제적 혜택을 받고 있으며 CSTO 탈퇴 논의와 달리 EAEU 탈퇴는 아직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

아르메니아는 러시아 주도의 유라시아 경제 연합(EAEU) 회원국으로서 러시아 시장에 대한 무관세 접근권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는 CSTO 탈퇴를 계기로 EAEU 내에서 아르메니아에 대한 관세 혜택을 재검토하거나, 아르메니아산 농산물 및 상품에 대한 검역 및 통관 절차를 강화할 수 있다. 러시아는 수십만 명의 아르메니아 이주 노동자가 본국으로 송금하는 규모가 아르메니아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이용해, 이들의 노동 환경이나 송금 절차를 제한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압박할 수 있다. 러시아는 CSTO 탈퇴 이후 아르메니아에 대한 안보 보장 약속을 공식적으로 철회하거나 최소화할 것이며 이는 아르메니아가 튀르키예 및 아제르바이잔과의 국경 분쟁에서 러시아의 군사적 지원이나 정치적 중재를 기대할 수 없게 됨을 의미한다. 또한, 러시아는 CSTO 틀 내에서 이루어지던 군사 정보 공유 및 방공 시스템 연동을 중단할 것이다. 이는 아르메니아가 튀르키예 등 잠재적 위협에 대한 조기 경보 및 감시 능력을 크게 상실하게 된다. 아르메니아 군의 무기 체계는 대부분 러시아산에 의존하고 있기에 러시아가 무기 및 부품 공급을 지연시키거나 기술 지원을 중단하면 아르메니아 군의 전투력이 크게 약화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 때문에 아르메니아가 러시아와 관계를 포기할 수는 없다. 만일 아르메니아가 적극적으로 친서방 정책을 시행한다면 러시아는 아르메니아 정부를 '서방의 꼭두각시'로 규정하며 CSTO 탈퇴를 배신행위로 비난할 것이다. 이는 국제무대에서 아르메니아의 입지를 약화하게 하고, 러시아와의 동맹 관계를 선호하는 다른 옛소련 국가들에 대한 경고가 된다. 러시아는 아르메니아 내의 CSTO 잔류를 주장하는 정치 세력이나 야당을 간접적으로 지원하여 파시난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할 것이다. 아르메니아는 안보 면에서 러시아로부터 '전략적 이혼'을 시도하고 있지만, 에너지와 노동력에 대한 깊은 경제적 종속 때문에 완전히 발을 빼지 못하는 복잡한 줄타기 외교를 이어가고 있다.

economies." *CivilNet*, 05 June 2024, <https://www.civilnet.am/en/news/780557/armenias-reliance-on-russian-remittances-drops-as-ukraine-war-reorders-regional-economies/>(검색일:2025.12.10).

3. 아제르바이잔

러시아와 아제르바이잔은 역사적으로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현재는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는 상황이다. 과거에는 사실상 동맹 관계로 간주했으나, 최근에는 외교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과거 제정러시아와 소련의 지배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반러 성향이 일부 존재하지만 동시에 인적 교류와 교역량이 많은 편이다. 양국은 독립국가연합(CIS)에 속해 있어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활발하며, 아제르바이잔 내에서 러시아어의 비중도 여전히 중요하다. 아제르바이잔은 중요한 산유국으로서 에너지 분야에서 러시아와 협력하기도 하며, 양국은 이란과 함께 공동 전력망 구축을 논의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석유와 가스 에너지를 생산하는 아제르바이잔은 유럽의 주요 에너지 공급국이다. 에너지 수출국인 아제르바이잔은 다른 남 코카서스 국가와는 달리 러시아로부터 경제적 의존도에서 벗어나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고 있다. 2003년 이래 알리예프 부자가 대를 이어 통치하는 권위주의 국가로 러시아와 일정한 우호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과 튀르키예는 한민족 두 국가로 민족적, 언어적으로 매우 긴밀하며 2021년 이후 군사 동맹 관계이다. 아제르바이잔은 튀르키예와 러시아 사이에서 적절히 줄타기 외교를 추진하고 있으며, 남 코카서스 지역에서 아제르바이잔을 통한 튀르키예의 개입은 역내 군사적 균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같이 아제르바이잔은 러시아 외에도 미국, 서방 국가, 튀르키예 등과 관계를 맺으며 균형 잡힌 외교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균형 잡힌 러시아-아제르바이잔 관계가 최근 몇 가지 사건으로 인해 급격히 악화했다.

2024년 12월 러시아 영공에서 발생한 아제르바이잔 민간항공기 격추사건이 관계 악화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러시아는 '비극적인 오 사격'이라고 해명했지만, 아제르바이잔은 이를 '의도적인 공격'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난했다.³⁴⁾ 이 사건 이후 양국은 상대국 대사를 맞초치하는 등 외교적 긴장이 심화했으며,

34) 아제르바이잔 항공이 운항하는 엠브라에르 190 항공기가 2024년 12월 25일 카자흐스탄 악타우에 바쿠-그로즈니 노선을 운항하다 추락한 사고로 3명의 승무원을 포함해 38명이 사망하고 29명이 생존. 아제르바이잔은 모스크바에 공식 사과, 전면적인 조사, 책임자에 대한 정의 구현, 그리고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러시아 정부 지원 언론사 기자를 체포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 2025년 6월, 러시아 당국이 2001년 살인 사건 수사를 명목으로 여러 아제르바이잔계 시민을 체포하면서 위기가 고조되었었다. 이에 아제르바이잔은 러시아 국영 언론사 활동을 중단시키고 러시아 국적 언론인들을 체포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했다.³⁵⁾ 양국은 상대국 대사를 초치하며 항의했고,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에 아제르바이잔의 책임이 없으며 러시아의 무례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양국 간의 불신은 깊어졌다. 이후 2025년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아제르바이잔 민항기 격추사건에 대해 사과했으나 사과 과정과 내용으로 인해 초기에는 아제르바이잔 측의 비판을 받았다.

러시아의 최초 사과는 사건 직후인 2024년 12월 28일, 푸틴 대통령은 일함 알리에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러시아 영공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희생자 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했다.³⁶⁾ 그러나 당시에는 러시아의 직접적인 책임이나 격추 사실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책임 없는 사과라는 비판을 받았다. 공식 책임 인정은 2025년 10월 9일, 타지키스탄 두산베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방공 시스템에서 발사된 미사일로 인해 항공기가 격추되었음을 공식 인정했다. 그는 미사일이 항공기에 직접 맞지는 않았지만 수 미터 떨어진 곳에서 폭발했다고 설명했다.³⁷⁾ 푸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희생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법적 절차를 약속했다. 이 공식적인 책임 인정과 보상 약속은 사건 발생 이후 10개월

35) "Azerbaijan Arrests of Russian-Owned News Agency Staff, Escalating Tiff With Russia." *GlobalPost*, 3 July 2025, <https://globalpost.com/stories/azerbaijan-arrests-of-russian-owned-news-agency-staff-escalating-tiff-with-russia/>(검색일:2025.11.30.). 2025년 6월 30일, 아제르바이잔 경찰은 바쿠에 있는 러시아 방송사 스푸트니크 아제르바이잔 사무실을 급습하여 총 7명의 직원을 구금했다. 이 중 편집장 예브게니 벨로우소프(Yevgeny Belousov)와 이사 이고르 카르타비흐(Igor Kartavykh)를 포함한 2명을 사기, 불법 기업 활동, 돈세탁 등의 혐의로 4개월간 구속했다.

36) "Putin apologises over Azerbaijan plane crash, without saying Russia at fault." BBC, 29 December 2024, <https://www.bbc.com/news/articles/cqx8l1533j5o>(검색일:2025.11.20.).

37) "Putin admits Russian role in 2024 Azerbaijani jet crash, offers redress." *Al Jazeera*, 9 October 2025, <https://www.aljazeera.com/news/2025/10/9/putin-admits-russian-role-in-2024-azerbaijani-jet-crash-offers-redress> (검색일:2025.11.25.).

넘게 이어진 양국 간의 심각한 외교적 긴장을 해소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푸틴 대통령의 공식적인 책임 인정과 보상 약속(2025년 10월) 이후, 러시아와 아제르바이잔 양국 관계는 정상화 단계로 접어들었고, 이 사건으로 인한 외교적 위기는 공식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보고 있다.³⁸⁾

2025년 10월 9일 두산베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의 사과와 보상 약속을 수용하고, 양국 관계의 오해 폐이지는 넘겼다고 선언했다.

민간항공기 격추사건 이후 상호 대사 초치, 언론인 체포, 러시아 문화원 폐쇄 등의 조치가 고조되었던 외교적 갈등이 완화되었다. 양국은 중요한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하기 위해 갈등을 봉합했다.³⁹⁾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고립을 탈피하고 북-남 수송 회랑(North-South Transport Corridor) 프로젝트 같은 전략적 이익을 위해 아제르바이잔과의 관계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아제르바이잔 역시 러시아의 협력이 필요했기에 양국은 실리적인 접근 방식을 취했다고 보겠다. 이번 사건은 러시아가 아제르바이잔을 종속적인 파트너로 대할 수 없으며, 상호 존중의 기반 위에서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었다. 러시아의 공식 사과와 보상 약속은 양국 관계 개선의 분수령이 되었으며, 현재 양국은 이 사건으로 인한 위기를 마무리하고 관계를 회복해 나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러시아가 국력을 소진하면서 아제르바이잔은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독립적인 외교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결론적으로 러시아와 아제르바이잔은 역사적, 경제적 유대로 얽혀있지만, 최근 발생한 사건들과 지정학적 변화로 인해 관계가 냉각되고 있으며 아제르바이잔은 러시아로부터의 탈(脫)러시아를 모색하는 추세이다.

38) "After Months of Tension, Moscow and Baku Have Forgotten Their Differences." *Carnegie Russia Eurasia Center*, 15, October, 2025, <https://carnegieendowment.org/russia-eurasia/politika/2025/10/russia-azerbaijan-conflict-resolution?lang=en>(검색일:2025.11.25.).

39) "푸틴 "아제르 여객기 추락, 러 방공미사일 10m 옆 폭발한 탓". 『연합뉴스』, 2025년 10월 9일, <https://www.yna.co.kr/view/AKR20251009064800080>(검색일:2025.10.30.).

IV. 나가면서

러시아는 전략적으로 옛소련의 영향권이었던 남 코카서스 3국(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영향력을 공고히 하고 서방(미국, EU, NATO)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고 한다. 코카서스 지역을 통과하는 에너지 수송로의 안정적인 확보와 통제를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으며 중동 지역에서 부상하는 급진 이슬람 세력의 침투를 차단하고, 지역 분쟁(예: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을 관리하며 러시아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하려 한다. 이를 위해 러시아는 군사적, 경제적, 정치·외교적 수단을 사용하여 남 코카서스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남 코카서스 국가인 아르메니아에 군사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조지아로부터 분리독립을 선언한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야에 대해서는 독립을 후원하고 군사 협정을 체결하여 군사적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아르메니아를 포함한 CIS(독립국가연합) 국가들과의 집단 안보 체제를 통해 군사적 영향력을 강화한다. 러시아는 역내 분쟁 발생 시 평화유지군 파견과 같은 방법으로 군사적 개입 또는 외교적 중재를 통해 지역 내 핵심 안보 제공자로서의 역할 강화를 통해 영향력을 유지하려 한다.

정치·외교적 수단으로는 남 코카서스 국가들의 정치적 불안정성이나 내부 갈등을 이용하여 친러시아 정권 또는 영향력 있는 정치 세력을 지원한다. 조지아의 압하지야 및 남오세티야처럼, 남 코카서스 국가 내의 분리주의 세력을 후원하여 해당 국가를 압박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경제적 수단으로는 코카서스 국가들에 대한 가스 공급 및 에너지 인프라 통제를 통해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유라시아 경제 연합(EAEU) 등을 통해 역내 국가들과의 경제적 통합을 추진한다. 러시아의 남 코카서스 전략의 변화는 이 지역 전통적 영향 국인 튀르키예와의 관계를 빼놓을 수 없다. 튀르키예와 군사적 관점에서 러시아는 완전히 상충하지만, 이 지역 안보와 경제에 관해 이해 관계를 공유할 수 있다. 특히, 러시아-튀르키예 간 광범위한 전략적 이해관계가 일치할 때 더욱 가능하다. 아제르바이잔산 가스를 튀르키예와 유럽으로 직접 수출하는 남부 가스 회랑(SGC) 건설은 러시아 에너지 공급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튀르키예의 실용 노선은 변화하는 지정학적 질서를 활용하여 남 코카서스 지역에서 독립적인 전략적 입지를 구축한다. 2020년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은 남 코카서스 내 권력 역학 관계를 재편했으며, 튀르키예는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를 활용하여 이 지역 내 더욱 강력한 발판을 마련하는 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력 약화로 인하여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이 축소되는 위기에 직면했다. 러시아는 남 코카서스 영향력 약화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튀르키예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지역에 대한 튀르키예의 영향력을 일정 부분 인정하고 튀르키예를 구성국으로 하는 지역 안보 기구를 구축하려 한다. 앞으로 남 코카서스는 러시아와 튀르키예 간의 경쟁과 협력의 변화 양상에 의하여 그 지정학적 내용도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와 튀르키예의 불안한 파트너십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전개, 서방 정책의 변화, 그리고 변화하는 지정학적 환경을 헤쳐나가려는 지역 행위자들의 의지에 종속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와 튀르키예가 전략을 재정비하는 가운데, 남 코카서스는 이 두 국가에 유라시아 대륙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불안정하면서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전장으로 남을 것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제한된 자원과 관심이 분산되면서, 남 코카서스에서의 군사적 지렛대가 약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전통적인 군사적 지배 전략에서 벗어나 경제적 연결성(교통 회랑), 하이브리드 영향력, 그리고 정치적 중재자 역할에 더 의존하는 적응형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러시아는 이 지역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의 약화에 대응하여 정치적으로 그리고 다자안보 구조를 통해 구조적 영향력을 유지하려 한다.

코카서스 국가들은 러시아의 지배를 수백 년간 받아왔고 특히 제정러시아 시기와 소련 시기를 거치면서 러시아 문명권에 속해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 문명적 영향은 남 코카서스가 러시아의 영향권 안에 놓이게 하는 요소로 러시아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겠다. 이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속화를 심화시켜 국민의 자율적 사고를 억제할 수도 있다. 조지아의 경우 러시아와 조지아와의 문화적 유대감은 서로를 적이 아닌 친구나 가족으로 인식하게 되어 신뢰 구축과 평화로 진행하기 쉽다. 조지아의 중 장년층이 러시아와의 문화적 유대감이 높은 데 반해 조지아 젊은 층들은 서구적 가치관에 더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세대 간의 갈등은 포스트소비에트 국가 전반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러한 현상을 슬기롭게 극복한 국가가 카자흐스탄이라고 볼 수 있다. 카자흐스탄의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공식화한 멀티-벡터 정책은 특정 강

대국에 종속되지 않고 주변 강국들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전략이다. 이는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실용주의 외교 전략으로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국제 사회에서 외교적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개념이다. 국제적 규범이나 제 가치, 이데올로기보다는 국가 안보와 경제적 실익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카자흐스탄의 대외전략은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속에서 생존 전략으로 합당하다고 본다. 다만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받았을 때 멀티벡터의 공간이 급속하게 축소되는 경향이 있지만, 강대국들 사이에서 생존과 번영을 원하는 중소국에 핵심적인 외교 자율성 확보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남 코카서스도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서방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유연한 대외전략이 필요하며 반대로 서방과의 관계에서 협력과 경제교류를 활성화하면서 러시아와의 경제교류와 안보적 영역에서 협력하는 것도 대외 안보 리스크를 헷징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윤희, “나고르노 카라바흐 분쟁의 평화적 해결 실패: OSCE 민스크 그룹의 중재 노력과 그 한계를 중심으로.” 『러시아연구』, 제31권, 제1호, 2021.
- 김연규, “아르메니아 문제와 아르메니아 ‘균형외교’의 한계.” 『중소연구』, 제32권, 4호, 2009.
- 이지은, “에르도안 집권기 터키 대외정책의 유라시아 지향성 강화.” 『슬라브研究』, 제36권, 1호, 2020.
- 현승수, “러시아의 남코카서스 정책: 군사안보 전략을 중심으로.” 『슬라브학보』, vol.29, no.2, 2014년. 장병욱,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의 원인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2권, 제1호, 2008.
- 조현준, 홍성우,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의 양면 게임 :OSCE 평화협상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29권, 제1호, 2025.
- 정세진, “조지아 대외정책의 방향성 : 조지아의 對 EU, 러시아 관계 및 나토 가입 이슈를 중심으로.” 『중소연구』, vol. 44, no.4, 2021.
- 정세진,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조지아 외교정책의 방향성: 탈 서방, 친 러시아 경향.” 『중소연구』, vol.49, no.2, 통권 186호, 2025.
- 신성균, 반기현, “하이브리드 전쟁(Hybrid war)으로 살펴본 제2차 나고르노-카라바흐(Nagorno-Karabakh) 전쟁.” 『국방연구』, vol.64, no.2, 2021.
- Alexandra Dienes, Elena Josten, “Georgia’s look to the future: One eye on Russia, the other on the West,” Friedrich Ebert Stiftung. Nov 2024.
- Faezeh Ghasemi, Hamid Hakim, “Georgia’s Foreign Policy from A Geopolitical Perspective (2008-2018); based on the Grand Chess Board Doctrine by Brzezinski.” Geopolitics Quarterly, Vol. 19, No. 4, 2024.
- “OSCE, 30년 만에 '민스크 그룹' 운영 종료...마러 영향력 재조정 국면.” 『nate 뉴스』, 2025년 12월 2일, <https://news.nate.com/view/20251202n15609>(검색일:2025.12.10.).
- “나고르노-카라바흐: '인종 청소' 우려에 아르메니아계 대탈출...갈등 이유는?.” BBC NEWS, 2023년 9월 27일,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4n5q399q15o>(검색일:2025.11.28.).
- “러시아가 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 모든 평화유지군을 철수시켰습니다.” Vietnam.vn, 2024년 12월 6일, <https://www.vietnam.vn/ko/nga-rut-toan-bo-luc-luong-gin-giu-hoa-binh-khoi-nagorno-karabakh>(검색일:2025.12.10.).

- “러시아 앞마당의 두 나라, 영토·종교 문제로 오랜 앙숙.” 『조선일보』, 2025년 8월 11일,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5/08/11/N6X4PAYWFFF6DAIGYCZTMBEEUE/(검색일:2025.11.30.).
- “조지아 대통령 ‘러시아적인 법’…‘외국 대리인’ 법 거부권.” 『한겨레』, 2024년 5월 19일,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1141091.html>(검색일:2025.10.30.).
- “조지아-러시아 무역액, 2025년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 『EMERiCs 러시아·유라시아』, 2025년 7월 23일, <https://www.emerics.org:446/newsBriefDetail.es?brdctsNo=384379&mid=a10100000000&systemcode=04>(검색일:2025.11.20.).
- “[이슈트렌드]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트럼프 중재로 역사적 평화협정 체결.” 『EMERiCs 러시아·유라시아』, 2025년 8월 22일,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85410&mid=a10200000000&systemcode=04>(검색일:2025.12.15.).
- “[이슈트렌드]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트럼프 중재로 역사적 평화협정 체결.” 『EMERiCs 러시아·유라시아』, 2025년 8월 22일,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85410&mid=a10200000000&systemcode=04>(검색일:2025.12.10.).
-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트럼프 중재로 ‘평화선언’ 서명.” 『연합뉴스』, 2025년 8월 9일, <https://www.yna.co.kr/view/AKR20250808153651071>(검색일:2025.11.30.).
- “푸틴 “아제르여객기 추락, 러 방공미사일 10m 옆 폭발한 탓.” 『연합뉴스』, 2025년 10월 9일, <https://www.yna.co.kr/view/AKR20251009064800080>(검색일:2025.10.30.).
- “After Months of Tension, Moscow and Baku Have Forgotten Their Differences.” *Carnegie Russia Eurasia Center*, 15, October, 2025, <https://carnegieendowment.org/russia-eurasia/politika/2025/10/russia-azerbaijan-conflict-resolution?lang=en> (검색일:2025.11.25.).
- “Azerbaijan Arrests of Russian-Owned News Agency Staff, Escalating Tiff With Russia.” *GlobalPost*, 3 July 2025, <https://globalpost.com/stories/azerbaijan-arrests-of-russian-owned-news-agency-staff-escalating-tiff-with-russia/> (검색일:2025.11.30.).
- “Armenia’s reliance on Russian remittances drops as Ukraine war reorders regional economies.” *CivilNet*, 05 June 2024, <https://www.civilnet.am/en/news/780557/armenias-reliance-on-russian-remittances-drops-as-ukraine-war-reorders-regional-economies/>(검색일:2025.12.10.).

- “Armenia to reduce housing aid for Nagorno-Karabakh refugees.” *Eurasianet*, 2 December 2024, <https://eurasianet.org/armenia-to-reduce-housing-aid-for-nagorno-karabakh-refugees>(검색일:2025.12.10.).
- “Georgia’s Parliament Passes ‘Transparency of Foreign Influence’ Law.” *Congress* 28, May 2024, <https://www.congress.gov/crs-product/IN12368>(검색일:2025.11.28.).
- “Georgia to suspend EU accession talks until 2028.” *Al Jazeera*, 28 November 2024, <https://www.aljazeera.com/news/2024/11/28/georgia-to-suspend-eu-accession-talks-until-2028>(검색일:2025.11.28.).
- “Georgians Protest Government Decision to Suspend EU Accession.” *Jamestown*, 12 June 2024, <https://jamestown.org/georgians-protest-government-decision-to-suspend-eu-accession/>(검색일:2025.11.30.).
- “Kobakhidze: Georgia has no diplomatic relations with Russia, unlike candidate countries such as Moldova.” *Georgian Public Broadcaster*, 07 November 2025, <https://1tv.ge/lang/en/news/kobakhidze-georgia-has-no-diplomatic-relations-with-russia-unlike-candidate-countries-such-as-moldova/>(검색일:2025.11.30.).
- “Mood and attitudes of the adult population of Georgia towards the events that have developed in Georgia since October 26 – public opinion poll.” *The Civil Society Foundation*, 11. February 2025, <https://csf.ge/en/%E1%83%9B%E1%83%9D%E1%83%A1%E1%83%90%E1%83%AE%E1%83%9A%E1%83%94%E1%83%9D%E1%83%91%E1%83%98%E1%83%A1-%E1%83%92%E1%83%90%E1%83%9C%E1%83%AC%E1%83%A7%E1%83%9D%E1%83%91%E1%83%94%E1%83%91%E1%83%98%E1%83%93/>(검색일:2025.11.28.).
- “Putin apologises over Azerbaijan plane crash, without saying Russia at fault.” *BBC*, 29 December 2024, <https://www.bbc.com/news/articles/cqx8l1533j5o>(검색일:2025.11.20.).
- “Putin admits Russian role in 2024 Azerbaijani jet crash, offers redress.” *Al Jazeera*, 9 October 2025, <https://www.aljazeera.com/news/2025/10/9/putin-admits-russian-role-in-2024-azerbaijani-jet-crash-offers-redress>(검색일:2025.11.25.).

- “Комментарий официаль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МИД России М.В.Захаровой в связи с переговорами лидеров Азербайджана и Армении в Вашингтоне (США).”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9 August 2025, https://mid.ru/en/foreign_policy/news/2040852/?lang=ru(검색일: 2025.11.18.).
- “Формат “3+3”: новое экономическое измерение для Южного Кавказа и соседей.” *Вестник Кавказа*, 24 окт 2023, <https://vestikavkaza.ru/analytics/format-33-novoe-ekonomiceskoe-izmerenie-dla-uznogo-kavkaza-i-sosedej.html?ysclid=mipuvsb540599983037>(검색일:2025.11.28.).
- “Южнокавказская шестерка”: какие перспективы у формата «3+3».” *Российский совет по международным делам* (РСМД), 27 августа 2024, https://russiancouncil.ru/analytics-and-comments/columns/sandbox/yuzhno-kavkazskaya-shesterka-kakie-perspektivy-u-formata-3-3/?sphrase_id=256419060&ysclid=mipuz27jdv621289065(검색일:2025.11.28.).
- “Российская база в Гюмри: где находится, состав, численность и история.” *Вестник Кавказа*, 26 окт 2023, <https://vestikavkaza.ru/articles/rossijskaja-baza-v-gumri-gde-nahoditsa-sostav-cislennost-i-istoria.html>(검색일: 2025.12.12.).

Abstract

Russia's South Caucasus Approach Strategy and the Responses of the Three Caucasus Countries: Focusing on the period after the outbreak of the Ukrainian War*

Kim, Seun Rae (Hankuk University)**

Russia considers the South Caucasus (Armenia, Azerbaijan, and Georgia) both a historical sphere of influence and a near-abroad region, and views its stability and security as a core element of its national security. Its primary objective is to prevent Western power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 (EU), and NATO, from becoming deeply involved in the region's political, military, and economic systems. The three South Caucasus countries, in particular, are navigating an ambiguous and complex path of competi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major powers, Turkey and Russia.

The three South Caucasus countries are navigating an ambiguous and complex path of competition and cooperation, particularly between the two major powers of Turkey and Russia. Their goal is to secure strategic autonomy from Russia through diplomatic flexibility and to establish stability and peace in the region through exchanges and cooperation.

Russia's limited resources and attention are being diverted by the war in Ukraine, weakening its military leverage in the South Caucasus. This has led Russia to shift away from its traditional military dominance strategy and instead adopt an adaptive strategy that relies more on economic connectivity (transport corridors),

* This work was supported b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Research Fund Of 2025 and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9S1A6A3A02102950)

** Professo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E-mail: sunrae63@hanmail.net

hybrid influence, and a political mediator role.

Keywords: South Caucasus, Russia's near abroad, Russian security,
Caucasus triad

투고일: 2025년 12월 31일, 심사일: 2026년 1월 31일, 게재확정일: 2026년 2월 21일

